

워터제네시스, ENVEX 2023서 다회용 컵 자동 살균세척기 '클린 지니' 소개해... “적은 물과 에너지로 99.9% 살균!”

✎ 남승현 기자 | Ⓢ 승인 2023.06.09 10:54



ENVEX 2023에서 워터제네시스가 선보인 자동 컵 살균세척기 'KLEAN GENIE(클린 지니)' 모습 | 촬영 - 에이빙뉴스

(주)워터제네시스(대표 이세현)는 6월 7일(수)부터 9일(금)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COEX) A홀에서 열린 'ENVEX 2023(제44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에 참가했다.

워터제네시스는 2018년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내벤처 1기로 시작해 이듬해 법인으로 설립된 기업이다. 물과 관련한 환경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이세현 대표를 필두로 기후환경 문제, 그리고 최근 수년간 전 세계적인 유행을 지속한 코로나 19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그 성과로 개발된 제품이 곧 자동 컵 살균 세척기인 'KLEAN GENIE(클린 지니)'로, 언제나 깨끗한 컵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회용 컵 사용률을 낮추고, 유행병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품이다.

클린 지니는 텀블러와 같은 개인 컵을 자동으로 살균, 세척하는 기능을 갖췄다. 별도의 세정제 없이 약 10초간 물만을 이용한 세정 작용으로 99.9%의 살균이 가능한 성능을 자랑한다. 수돗물을 포함한 모든 물에 함유된 염소이온 성분을 실시간으로 전기분해해 살균력이 강한 차아염소산(HOCL)을 생성, 활용하는 원리다.

또한, 물과 공기의 이류체를 혼합 유입시켜 초당 30회의 펄스(Pulse)파를 생성해 세척력을 강화하고, 물의 소모량은 최소화한다. 나아가 360도 다면체 노즐로 컵 내부는 물론, 입이 닿는 부위를 동시에 세척할 수 있고, 마지막 헹굼 단계에선 잔류 물질을 제거해 더욱 깨끗한 컵 사용을 가능케 한다.



클린 지니가 물을 분사하며 컵을 세척 중인 모습 | 촬영 - 에이빙뉴스

워터제네시스는 클린 지니의 1세대 모델에 이어 2~3세대 제품 역시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세대 모델의 경우, 탁상용으로 제작되어 고정된 위치에서 우수한 사용 편의성을 제공하는 제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워터제네시스 관계자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국내외 관련 전시회에 꾸준히 참가해 클린 지니를 소개하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특허 및 인허가 취득 절차도 다수 진행 중인 만큼, 글로벌로 뻗어 나가는 자사 행보에 기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44회째를 맞은 ENVEX 2023은 국내 대표 환경기술&탄소중립 전문 전시회로, 환경보전협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협회가 주최하고 환경보전협회가 주관했다. △수질 △대기 △폐기물 △측정분석기기 △친환경 상품 △수변구역 생태 복원 △해수 담수화 △화학 등 환경산업기술 분야와 △탄소 포집 △친환경 자동차 산업 △수소 △태양광 및 태양열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 △바이오가스 등 그린에너지 분야가 전시 소개됐다.

→ ENVEX 2023 뉴스 특별 페이지 바로 가기



ENVEX 2023에 참가한 워터제네시스 부스 모습 | 촬영 - 에이빙뉴스



